



지금은 식사중!

흠 먹는 중국 소녀-1,800kg 먹어치워

중국 내몽고에 밥을 먹듯 매일 흠을 먹는 소녀가 있어 화제다. 27일 동포신문인 길림신문에 따르면 내몽고에 사는 우치파라치치거(19)라는 소녀는 7세 때부터 흠을 먹기 시작해 지금까지 3천근(1천800kg 정도)을 먹었다.

‘보배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까니마다 흠이 있어야 할 정도로 흠을 즐겨 먹는다.

그는 “한번은 강변에서 놀다가 갑자기 흠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입 먹어 봤더니 맛이 좋았다”며 “그 후 호주머니에 늘 흠을 넣고 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마다 먹었다”고 이 신문과 인터넷에서 말했다.

이에 놀란 부모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또 한번 놀랐다는 것.

부모는 우치파라치치거가 학교에 들어가자 담임 교사를 찾아가 흠을 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화장실 등에 숨어서 몰래 흠을 먹었다.

그는 “하루에 적어도 2~3냥(75g~0.1kg)은 흠을 먹어야 하고, 많을 때는 2근(1.2kg) 정도를 먹는다”며 “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美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석 비올라주자 장충진씨

미국의 5대 오케스트라 ‘빅 파이브’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수석 비올라 주자에 한국인 장충진씨(38)가 임명됐다고 일간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보도했다.

서울 태생인 장씨는 12살에 전국 바이올린 경연에서 우승, 서울 시립교향악단과 초연을 했으며 13살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 줄리아드 음악 학교, 템플대, 커티스 음대를 졸업했다.

남부를 전·의경 어머니회

독거노인과 자매결연



광주남부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는 27일 오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독거 노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불교 조계종 불자대상에

김용림·권영기씨 선정

불교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지관 총무원장)는 텔런트 김용림(66 사진) 씨와 육군 2군 사령관 권영기(59) 대장을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위는 “김씨는 조계종 포교원 ‘신도증’ 홍보모델과 해인사 팔만대장경 동안 간행사업 홍보대사로 활동한 공로가, 권 대장은 7사단장 재직시 1인1종교갯기 운동과 군 병당 백악산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군 포교 활성화에 힘쓴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진행된다.

국정원 광주지부

정착도우미 초청 격려

국정원 광주지부는 27일 탈북자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정착도우미 30여명을 서울시 내곡동 국정원으로 초청, 격려했다.

내달 24일 고국서 해금 단독 콘서트 갖는 ‘국악계의 보아’ 꽃별

“전통 외면하면 뿌리없는 나무 되죠”

국악을 전공한 20대 여성이 일본에서 첫 음반을 내고 4년간 활동을 하다 최근 고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해금 연주자인 꽃별(26·본명 이꽃별)씨. 청바지를 입고 한쪽 발을 모니터에 올려놓은 채 해금을 연주하던 이씨의 열정적 모습에 일본 음반사 관계자의 눈길이 고정된 것. 그녀는 일본 측 관계자의 뉴에이지 음악에 꽃별의 해금 소리를 얹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뉴에이지 음악에 해금소리 얹어

이씨는 다음달 24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고국인 한국에서 여는 첫 단독 콘서트다. 일본 열도에서 4년째 활동하며 3집 ‘Fly Fly Fly’까지 낸 뒤 여는 콘서트. 하지만 첫 음반을 낸 것처럼 떨리고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한다. 꽃별이 일본에서 활동하게 된 데는 지난

2002년 한국예술종합대학 2학년 재학 중 소리로 김용우 밴드의 세션으로 일본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청바지를 입고 한쪽 발을 모니터에 올려놓은 채 해금을 연주하던 이씨의 열정적 모습에 일본 음반사 관계자의 눈길이 고정된 것. 그녀는 일본 측 관계자의 뉴에이지 음악에 꽃별의 해금 소리를 얹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충실하게 전통 음악을 연구해도 모자랄 판에 옆길로 새는 게 과연 옳은 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건너간 일본 생활, 당연히 쉬울 리 없었다. 해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훨씬 힘들었다. 자신보다 뒤

어난 사람들에게 혼나 눈물을 쏟기도 했다. 자존심도 상했고 외로움도 컸다. 그럴수록 독하게 마음 먹고 밤새 연습해 주어진 일을 해냈다.

일 진출 4년-산조·정악 매일 연습

이씨는 “덕분에 훌쩍 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피아니스트 사사키 이사오, 작곡가 마사쓰구 시노자키 등 걸출한 뮤지션의 손을 거쳐 2003년 첫 앨범 ‘small flowers’를 냈다. 몇몇 곡은 이미 국내에서도 광고 음악으로 쓰여 익숙하다.

처음엔 일본 거장들의 실력을 배경 삼아 해금 연주만 하다 점차 자신의 비중을 늘렸다. 3집에서는 선곡·작곡·편곡·믹싱·마스터링 등 앨범 제작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이씨는 “전통은 항상 지키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앨범에 담긴 곡은 연습을 못할지언정 산조와 정악은 매일 연습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꽃들은 주인의 통기타 소리에 활짝 피더라

기타리스트에서 화훼농 변신

해남 민재평씨 ‘귀농 성공기’

“아름답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꽃과 음악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 어느 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귀농해 이제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화훼 전문가가 된 민재평(47·해남군 현산면)씨의 화려한 변신이 화제다.

해남군 현산면에서 가나안농원을 운영하면서 카네이션과 알스트로메리아 등을 재배하고 있는 민씨는 해남 화훼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카네이션 작목반의 대부다.

10년전 이 지역에 카네이션 재배를 보급하기전 민씨의 직업은 그룹사운드 기타리스트. 서울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활발히 활동하던 소위 ‘잘나가던’ 음악인이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뜻이겨’ 귀농했지만 농사는 전혀 모르던 그의 일



그룹사운드 기타리스트에서 화훼 전문가로 화려한 변신을 한 민재평(47)씨가 카네이션 온실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있다.

이 처음부터 순탄할 리가 없었다.

첫해 무작정 오이와 호박 농사를 지었지만 실패한후 눈을 돌린 것이 화훼였다. 따뜻한 기온과 일조량이 화훼 재배에 적지인데다 화훼 재배의 신생지라서 다른 지역보다 땅심이 좋은 것도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후 그는 네덜란드까지 수차례 다녀오면서 종자를 사오고 선진 재배방법을 배워 이제는 ‘해남 카네이션’이

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상품을 만들어 냈다.

민씨는 ““돈을 보고 꽃을 재배하면 반드시 실패하더라”면서 “농부의 마음에 다 그렇듯 잘자란 꽃들을 보면 자부심이 생기고 그게 농사를 짓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전직 음악인답게 지금도 집안에서나 밖에서 멋진 팝송 한 소절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위성미, 골프채 대신 야구방망이

30일 문학구장서 티격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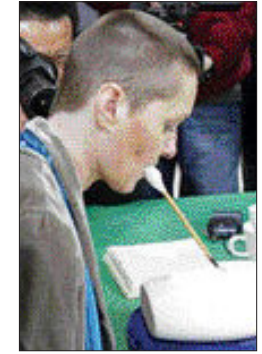
‘천재 소녀골퍼’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인천 문학구장에서 골프채 대신 방망이를 잡는다. 프로야구 SK와이브스는 위성미가 30일 문학구장에서 열릴 두산과 홈 경

기에서 시구를 앞두고 관중들 앞에서 10분간 티격 연습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SK는 위성미가 야구공을 쳐보고 싶다는 의사를 구단에 전해와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는 선수단의 친필 사인이 적힌



야구배트를 시구자로 나선 위성미에게 기념품으로 줄 계획이다.



‘살아있는 비너스’ 엘리슨 래퍼

국내 구족화가 만난다

‘살아있는 비너스’ 엘리슨 래퍼(41)가 국내 구족화가들을 만난다.

27일 한국구족화가협회에 따르면 래퍼는 29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구족화가 10여명을 만나 다과회를 겸한 담소를 나누고 함께 미술관을 둘러 볼 예정이다.

이들의 만남은 서로 활동 무대는 다르지만 다 같은 세계구족화가협회 회원으로 일어나 발로 그림을 그린다는 동료 의식에서 성사됐다.

지난 1956년 소아마비 장애인 에릭 스테그만이 창설한 세계구족화가협회에 속한 구족화가는 전 세계 60여개국에 걸쳐 700여명이 있고 한국 구족화가협회에도 22명의 회원이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족화가는 세 살 때 기차에 치어 두 팔을 잃은 뒤 발로 그림을 그리게 된 단국대 예술대학 오순이(여·40) 교수.

올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정한 ‘21세기 이걸 우수 인재’에 뽑히고 국전 수상경력도 있는 박성(32)씨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보이는 구족화가 중 한 명이다.

오노 요코, 백남준 추모 퍼포먼스 가져

지난 1월 타계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26일 저녁(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구겐하임 미술관 메인홀에서 펼쳐졌다.

이날 퍼포먼스에서는 백남준 선생의 지인들이 생전의 고인을 회고하며 그의 작품을 설명한 뒤 작고한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가 ‘악수·조각·빠’란 제목으로 특별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난 2월 장례식에서도 백남준 선생에 대해 각별한 정을 나타냈던 요코는 이날 행사에서도 15분 간에 걸친 단독 퍼포먼스를 통해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예술가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표현했다.

요코는 커다란 꽃병사진을 배경으로 450여조각의 꽃병조각을 놓고 “꽃병이 깨졌다”, “동서남북의 신이시여 백남준의 영혼을 보호소서”를 외친 뒤 쓰레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 고인을 기렸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정재춘(주) 디앤 대표이사)씨 장남 은호(공인회계사)군 백창현(삼일회계법인 호남본부장·부대표)씨 장녀 은경(공인회계사)양=29일(토) 오후 4시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유일광(보건대 교수)씨 차남 경원군 인성근(전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씨 차녀 지성양=29일(토) 오후 1시 백운동 서남교회.
- ▲이재현(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씨 차남 동훈군 서진철(금호고교수부사장)씨 장녀 지연양=29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김영순(전 광주 보문고 교장)씨 아들 대행(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군 박평준(전 전남도립남대 학장)씨 딸 서정(대학강사)양=29

- 일(토) 낮 12시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홀.
- ▲김재성(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소장)씨 장남 희민군 박중인씨 장녀 선하양=30일(일) 오후 1시50분 농성동 상록회관 3층 장미홀. 피로연 28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 영암휴게소 2층 연회장.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 28회 동창회(회장 이혁) 월례회=28일(금) 오후 7시 등촌. 373-1566
- ▲함평 월야중 제 27회 동창회(회장 김태훈) 은사님 초청 모임=29일(토) 오후 6시30분 광산구 우산동 콜럼버스 웨딩홀 2층 아모르홀. 011-614-3242
- ▲조대부고 31회 동창회(회장 정병래)=29일(토) 오후 6시 상무지구 동해해물탕. 373-9218

- ▲대촌중앙초교 총동문회=30일(일) 오전 9시부터 대촌중앙초교. 010-9802-4488
- ▲영암 시중초교 제 29회 동창회(회장 강성일) 정기총회=30일(일) 오전 11시 남광주 회센터 2층 일성회집. 225-3878

총친회

- ▲전주리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도지원 곡성군분원(분원장 리수열) 정기총회=28일(금) 오전 11시 곡성군민회관 소회의실. 011-641-1813
- ▲전주리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도지원 광주동구분원(분원장 리만수) 정기총회=29일(토)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225-5631
- ▲김영기씨 광주·전남 총친회(회장 김한규)=29일(토) 오전 11시 꿈의궁전 웨딩홀 1층 011-611-4567

- ▲경주최씨 호남총친회(회장 최성동) 정기총회=30일(일) 오전 11시 광주 대성직업전문학교 5층 회의실 513-5000.6114
- ▲전주리씨 효령대군과 교관공첨지공 총친회(회장 이기춘) 제 13회 정기총회=5월4일(목) 오전 10시 광양시 대동중앙원 광주전남도지원 광양분원 사무실. 011-647-7845

향우회

- ▲재광 해남군 복일면 향우회(회장 한동주) 가족체육대회=30일(일) 오전 10시 광주주월중학교 운동장. 011-641-7125

알림

- ▲제12회 전국 초등학생 대상 금연결짓기 공모=초등학교 2~6학년

- 대상으로 ‘휴먼’을 주제로 원고지 7매 내외로 작성.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학동 14번지 소년한국일보 사업부’ 문의 02-7244-2408
-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변호사 공채원 법률사무소 토오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모집

- ▲2006년 해군·해병대 군 장학생(학사장교) 및 전문대(부사관) 장학생 모집=모집 기간은 5월 11일까지. 대학 장학생은 4년제 대학 1·2학년 재학생, 전문대 장학생은 2년제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모집. 접수

- 는 해군 홈페이지 모병센터(www.navy.mil.kr) 230-4247
- ▲광주월광교회 가정사역위원회 제 1기 예비 엄마학교 참여자 모집=5월 30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50명. 회비 4만원(부부 6만원). 문의 011-9431-1549 010-5627-0009
-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전업주부 취업 훈련생 모집=취업을 희망하는 고졸 이상 20~40대 주부로, 교육 과목은 컴퓨터 실부. 5월 12일까지 접수. 교육 기간은 5월23일~8월3일. 교육비는 본인 부담 4

- 만원. 266-8500
-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연극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으로 연극연기(배우)·기획·연출 등 모집. 430-5257 010-7205-0517
-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부음

- ▲박복정씨 별세 치수남·정남·성일·옥금·옥미·옥향씨 모친상 안춘수씨 빙모상=발인 28일(금) 금호장례식장 101호 227-4385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정경공원
가족님길모 특별분양
전화 (062) 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뒤(구 호진)
대표: (062) 515-4488